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2019 / 07-08
열매소식지

특집 “Quo vadis: 한국교회, 어디로 가는가?”

“한국교회, 이제 어디로 가야하는가?”

- 비난 받는 한국교회의 과제(조성돈)

“한기총이란 무엇인가?”(박제민)

명성교회 불법세습 시도 Time-line

대형교회의 비리와 세습, 무엇이 원인인가?

한국교회에 만연한 번영복음의 실체를 파헤치다

정현구 목사
김희권 교수
추천!



지은이 권수경

서울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한 뒤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신학(M.Div.)을 공부했다. 1991년 도미하여 예일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철학신학 전공으로 신학석사(STM) 학위를, 예일대학교 대학원 종교학과에서 종교철학을 전공하여 박사(Ph.D.) 학위를 받았다. 주요 관심 분야는 조직신학, 변증학, 현대 문화 및 사상 등이며, 특히 다른 종교 및 문화와 구분되는 기독교 복음의 유일성을 규명하는 작업에 열정을 쏟고 있다.

152x225mm / 421쪽 / 20,000원

번영복음의 속임수

번영복음에 대한 성경적, 철학적 비판

특집	“Quo vadis: 한국교회, 어디로 가는가?” “한국교회, 이제 어디로 가야하는가?”-비난 받는 한국교회의 과제 “한기총이란 무엇인가?” 명성교회 불법세습 시도 Time-line	004 006 009
더 높은 책무성	자발적불편운동 자발적불편운동 캠페인 “제로 웨이스트” 교회신뢰운동 <좋은나무> “적대적 한 일 관계 바로잡을 수는 없다” 교회신뢰운동 <좋은나무>가 1년 간 걸어온 길 교회신뢰운동 “Post-Truth: 거짓과 진실을 찾아서” 강연 후기 좋은사회운동 “공정한 선거, 절차를 넘어 결과까지” 포럼 후기 바른가치운동 평신도의 상상력 2회차 “평신도 점-프: 평신도 신앙의 새로운 시작” 후기 기독교윤리연구소 “한국 개신교의 혐오를 분석하다” 세미나 후기	010 011 014 016 018 019 020
더 깊은 투명성	5·6월 재정보고, 후원자명단	023
더 넓은 공공성	활동보고 활동계획 / 활동스케치(청년위원회 모임/사무처 워크숍) 전국기윤실수련회 / 전국기윤실주소록 자체휴강프로젝트 “With Camp”	026 027 028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섬기는’ 사람들



이사 백종국(이사장) 강석창 강영안 권장희 김양재 김홍섭 문애란 박제우 박종근 방성기 배종석 송인수 유해신 이문식 이의용 임성빈 정병오 전재중 정애주 정원구 조홍식 주광순 한정화 홍정길 **감사** 황병구 **자문위원회** 손봉호(위원장) 박상배 김경섭 라영환 손인웅 이동원 이장규 이진오 황준성 **공동대표** 정병오 배종석 정현구 **상임집행위원회** 정병오(공동대표, 위원장) 배종석 정현구(공동대표) 신동식(자발적불편운동본부장) 조성돈(교회신뢰운동본부장) 이상민(좋은사회운동본부장) 목광수, 박선영(바른가치운동본부장) 고재길(기독교윤리연구소장) 김진우(상집위원) 김상덕(상집위원) **기독교윤리연구소** 고재길(소장) 임낙형(부소장) 성신형 송준인 신원하 이상원 이장형(운영위원) 강진구 김동춘 김승곤 노영상 임성빈 추태화 홍순원(연구위원) **사회복지위원회** 조홍식 이만동(공동위원장) 이재민 이주환 조태례(부위원장) 라창호(교회상 운영위원장) 강정규 고기숙 권오용 김미혜 김동배 김정진 김수정 김현호 두재영 박지영 배성훈 송시섭 신정윤 오세란 오창섭 원명순 이무영 이영분 장동한 장원종 **교사모임** 한성준(대표) 김홍임(부대표) 김애희(사무국장) 권순홍 김종대 김진우 노명원 서현희 우희정 이미나 이화진 임현경 정영선 천무현 최나영 **사무처** 김현아 박계민(팀장) 윤신일 조희준 최진호(간사) **전국기윤실협의회**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익산 인천 전남 전주 진주 청주 / (준비지역) 정읍 제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9년 7-8월호 **통권 271호**
소재지 04382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54길 30, 세대빌딩 401호
전화 02-794-6200 **팩스** 02-790-8585
E-mail cemk@hanmail.net **홈페이지** www.cemk.org
발행인 백종국 **발행일** 2019. 7. 30
편집인 정병오 **편집** 윤신일 **디자인** 정호연

보고기간 2019년 5월 26일~2019년 7월 19일까지의 활동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타 본 소식지는 창조세계를 돌보는 마음으로 재생종이에 인쇄했습니다.

 표지종이는 고지율(재생펄프 함유율) 55%(사용전)의 양크르지이며, 본문종이는 고지율20%의 그린라이트지를 사용하여 인쇄하였습니다. 형광증백제, 염소계 표백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 이제 어디로 가야하는가?"

비난 받는 한국교회의 과제



글. 조성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장)

10년도 더 된 것 같다. 한 토론회에 참여했다. 한국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 토론자가 한국교회는 아직 멀었다고 했다. 바닥을 쳐야 반전의 기회가 있는 것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했다. 그때 내 마음에 그건 아니라고 했다. 이 보다 더 추락하고, 더 망가질 수는 없다고 보았다. 이제 한국교회는 반등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아니다. 그리고 10년이 넘어도 그 바닥은 보이지가 않는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를 수없이 되뇌었는데 항상 새로운 것이 나타나서 '그때가 좋았다'를 이야기하게 한다. 한국교회는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

2006년에 전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독교는 유일하게 줄어들었다. 그 숫자가 14만 4천여 명으로 무슨 종말의 상징과도 같았다. 오히려 당시 천주교는 54%가 증가하여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당시 이러한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하며 나는 한국교회가 과도기를 겪고 있는 것이고 또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 다들이 이제 한국교회는 무너질 것이라고 할 때 나는 과도기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 이유를 한국교회는 시대를 따라 변신해 왔는데 아직 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곧 영성과 디아코니아를 통해서 가능성을 열 것이라고 했다. 예상은 맞아 떨어지는 듯 했다. 한국교회는 영성과 디아코니아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추구해 갔다. 하지만 반등은 없었다. 비록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개신교의 숫자가 늘어났다고 나왔지만 아무도 그 숫자

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교단의 통계가 말해주고 있고, 우리의 체감에서 느껴지는 바는 정말 종말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실은 수많은 교회들이 이 사회에 이바지하며 소통의 장을 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시시때때로 터져나오는 대형교회와 비리교회들의 사건사고들로 무너지고 있다. 이런 소문들이, 아니 이런 뉴스들이 언론에 터져 나올 때마다 교회들은 지진을 만난 듯 무너져 갔다. 실은 당사자들은 그런 지진의 강도를 못 느끼고 있는지 모르지만 작은 교회들은 손도 못 써보고 허물어지고 있다.

10년 전 좀 연구의 테마는 작은교회였다. 어떡하면 무너지는 작은교회들을 붙잡을 수 있을까, 어떡하면 작은교회들이 다시 설 수 있을까가 주 관심사였다. 실은 학교에서 만나는 목회자들이 대부분 작은교회 목회자들이었고, 졸업생들 역시 그러했기에 이 주제는 정말 절실했다.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 제안도 하고, 목회자 프로그램도 많이 이끌었다. 그렇게 10년 정도를 했는데 어느날 '중형교회'라는 주제가 다가왔다. 큰 관심이 있었다기 보다는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제안을 했다. 이제 작은교회는 어찌할 바가 없는 상황이고 중형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연구를 하며 중형교회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과의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기대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작은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중형교회들도 무너지고 있었다. 장년 기준으로 300명에서

1천 명 가량 되는 중형교회들이 소리 소문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때 ‘한국교회 마지노선 중형교회’라는 주제를 내세우고 세미나를 진행했다. 보통 중형교회 하나가 50개에서 100개 정도의 교회와 단체들을 돕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무너지면 이러한 교회와 단체들이 함께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중형교회를 한국교회의 마지노선이라고 본 것이다. 그런데 실은 이미 중형교회 마저 급하게 무너져 가고 있었다.

인터뷰 도중 특이사항을 발견했다. 몇몇 교회가 하는 이야기가 40대 초반부터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3교회의 목회자가 정확하게 40대 초반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살펴보니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런 현상이 있었다. 결국 40대 초반을 기준으로 하여 교회를 등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특징은 밀레니얼 세대이다. 젊은 시절에 20대를 지난 이들부터 해서 이들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다. 이들의 특징은 권위에 대한 부적응이다. 생각으로는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들이 교회에 나오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이다. 본인들의 견해와는 다른 정치 이야기가 난무하고 사회 현상에 대해서 극우적인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신앙의 이름으로 강요되는 것이다. 이런 일에 감당할 수 없는 이들은 싸움보다는 평화를,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 거기에 언론에서 터져 나오는 교회의 문제들은 더 이상 이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없게 만든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고 드러내야 할 일이 아니라 숨기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된 것이다. 결국 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머지않아 하나님마저 떠나고 말 것이다. 이제 교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는 희망이 없다. 어느 곳 하나 우리에게 희망을 줄 곳이 없다. 작은교회이든 중형교회이든, 거기에 대형교회이든 우리에게 가능성을 남겨 주는 곳은 없다. 더 이상의 희망은 우리에게 헛된 기대만 남겨 놓게 된다. 이제 이 교회의 프레임을 버려야 할 때가 됐다. 기득권이 있고, 권력과 돈이 있고, 그를 둘러싼 여러 비리와 반도덕이

판을 치는 교회 프레임에 소망을 둘 수는 없다. 이 모든 것을 교회 울타리 안에 가두어 두고 이걸 신앙이라고 가르치는 한 이곳에 소망이 있을 수 없다.

이제 판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의 생각과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교회당에 미련을 두지 말고 사람들의 삶 속으로 과감하게 들어가야 한다. 교회와 세상으로 보는 이분법을 버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사역의 장을 바꾸어야 한다. 그러면 교회가 다시 보인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믿는 이들의 공동체라는 말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는 말이 새로이 들어온다. 그리고 보면 교회의 주인공은 목사나 장로가 아니라 평신도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공동체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할 곳은 실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세상의 주인공은 바로 평신도들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평신도 운동이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낡은 교회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주인공인 평신도들이 일어나야 한다. 이들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교회의 건물을 세우고 채우는 이들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바로 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과감히 평신도들이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깨기 바란다. 교회 울타리 안에서 목사가 원하는 교인이 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곳곳에서 이들의 단체가 세워지고, 이들이 모임이 생겨나길 기도한다. 교회에서 받은 상처를 극복하고, 교회에서 받은 실망을 털어버리고, 신앙의 수요자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신앙의 주체가 되길 바란다. 그래서 교회당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 이제 이것이 끝없이 추락하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다. **필**

한기총이란 무엇인가?

한기총의 탄생·변질·몰락의 역사와 그 현황

글. 박제민 팀장

한기총의 탄생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시작 이야기를 하려면, 역설적이기도 하고 필연적이기도 한 것인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언급해야만 한다. 1988년 2월, NCCK 제37차 총회에서는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 선언”(88선언)을 발표했다.¹⁾ 이 선언은 개신교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한국 기독교사 연구의 거장인 이만열 선생은 ‘88선언’에 대해 “분단 시대에 한국 기독교가 남긴 가장 중요한 문건의 하나로 한국 기독교사에 남을 것”이라고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개신교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88선언에 대한 반발도 터져 나왔다. 특히 북한 출신 목회자들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그 중심에는 한경직(영락교회) 목사가 있었다. 1989년 1월, 보수 개신교 원로들은 한경직 목사의 거처에 모여서 NCCK를 대신하는 개신교 연합기관을 세우기로 결의했다. 그래서 1989년 4월에 창립준비위원회 총회, 12월에 창립총회를 거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탄생했다.

그런데 한기총의 출범에 당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 한기총의 초대 총무였던 한명수 목사는 <뉴스앤조이>와의 인터뷰에서 “설립 당시 전두환 정권이 NCCK를 견제하기 위해 한기총을 탄생시켰다는 근거 없는 말이 돌았는데 총무로 활동하면서 그 소

문이 사실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그 근거로 한경직 목사 등 원로들이 군사정권에 찬성한 점, 당시 문화공보부 중무실장이 박맹술 초대 회장을 시도 때도 없이 불러서 무언가를 지시한 점 등을 들었다. 국정원과거사진실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오충일 목사도 2005년 4월 한포럼에서 한기총 결성에 안기부의 종교담당 직원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한기총의 변질

꺼림칙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기총은 이후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역사와 전통에서는 NCCK(1924년 설립)에 비교될 수 없었지만, 가입교단 수와 규모 면에서 NCCK를 압도하며 성장했다. 1989년 출범 당시는 36개 교단이었던 것이 2011년 기준으로 66개 교단으로 늘어났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등 규모가 큰 교단이 모두 소속되어 대표성을 가지게 되었다. 사회에서, 특히 정치권에서 개신교를 대상으로 인사를 하거나 의견을 구할 때 한기총을 찾는 일이 잦았다.

한기총에 대표성이 생기자 ‘힘’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특히 한기총 대표회장 자리는 ‘빛 좋은 자리’였다. 대형교회 목사, 교단장 출신 목사들이 차례로 대표회장 이 됐다. 엄신형 목사는 군소교단 출신 최초로 대표회장이 됐는데, 당선되면 10억 원을 현금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우려와 빈축을 샀다.

1) 원문은 다음 링크를 참조: http://www.kncc.or.kr/admin/bbs/down.php?code=old_pds&idx=9087&no=1.

이에 대한 요약과 평가는 다음 링크를 참조: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76684>. (2019. 6. 20. 접속)

한기총은 대표회장이 10억 원쯤 내야 유지되는 단체, 바꾸어 말하면 10억 원을 내면 대표회장 자리에 당선될 수 있는 단체였다. 언제부터인지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10당 5락’이라는 말이 들었다. 5억 원을 쓰면 떨어지고 10억 원을 써야 당선된다는 이야기였다. 개신교 기관의 대표 선거에서 돈이 오고간다는 추악한 소문은 곧 사실로 드러났다.

돈 선거, 분열, 막말-정파 목사의 등장

한기총은 2011년 돈 선거 논란을 겪으며 무너지기 시작했다. 2003-2004년 대표회장을 맡았던 길자연 목사가 2011년 대표회장에 또다시 출마해 당선됐다. 그런데 길자연 측에서 돈을 돌렸다는 폭로가 나왔다. 한기총은 직전 대표회장인 이광선 목사 측과 차기 대표회장인 길자연 측으로 나뉘어 갈등을 겪었다. 그 와중에 이광선은 자신도 돈을 돌렸다고 인정했고, 전임 대표회장이었던 이만신 목사가 한기총 특별기도회 설교 중에서 엄신형, 이광선, 길자연 모두 돈을 돌렸다고 회개하라는 돌발 발언을 했다.

결국 법원의 증재로 돈 선거를 막기 위해 정관에 ‘교단순번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길자연이 대표회장으로 복귀한 후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길자연에 이어 다음 대표회장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소속인 홍재철 목사가 단독 출마해 당선되었다. 다른 교단들은 반발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결국 한기총에서 떨어져나가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을 만들었다. 이후 홍재철이 이단성 있는 교단, 단체, 인물들을 영입하면서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은 더 어려워졌다.

2019년, 몰락하는 한기총의 대표회장으로 막말과 정치파벌 행위를 일삼는 전광훈 목사가 당선됐다. 한기총의 전성기 시절이라면 전광훈 같은 사람이 대표회장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전광훈의 당선 자체가 한기총의 몰락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아니다 다를까, 전광훈은 이단성 있는 교회, 인물을 한기총에 받

아들이고 한국 개신교의 이름을 마구 갖다 쓰면서 막말과 정치파벌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한기총, 한국 개신교 소수집단

한기총은 지난 6월 5일 발표한 이른바 ‘시국선언문’에서 스스로를 “6만5천 교회 및 30만 목회자, 25만 장로, 50만 선교가족을 대표하는 한기총”이라고 표현했다. 과연 한기총은 한국 개신교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까?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8년 한국의 종교 현황”을 토대로 검토해 보았다.

먼저 교단 수를 살펴보자. 현재 한기총 홈페이지에는 가입교단이 79개로 소개되어 있다. 하지만 그중에 10개 교단이 행정보류 상태이고, 최근에 행정보류를 결의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사실상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까지 포함하면, 현재 한기총에는 67개 교단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2018년 한국의 종교 현황”은 한국 개신교의 전체 교단 수를 374개로 보고 있다. 단순히 수치만으로 보면 한기총에는 한국 개신교 전체 교단 중 약 18%가 가입해 있다. 게다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등 규모가 큰 대표적인 교단들은 모두 빠져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한기총은 군소교단들의 연합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다음으로 교회 수를 살펴보자. “2018년 한국의 종교 현황”에 따르면 한국 개신교의 교회 수는 83,883개다. 자료에는 교직자 수나 신자 수는 기록되지 않은 교단이 많지만, 교회 수는 모두 기록되어 있으므로 보다 명확한 비교가 될 수 있다. 자료에서 한기총에 소속된 교단의 교회 수를 모두 합하면 17,855개인데, 한국 개신교 전체 교회 수의 약 21%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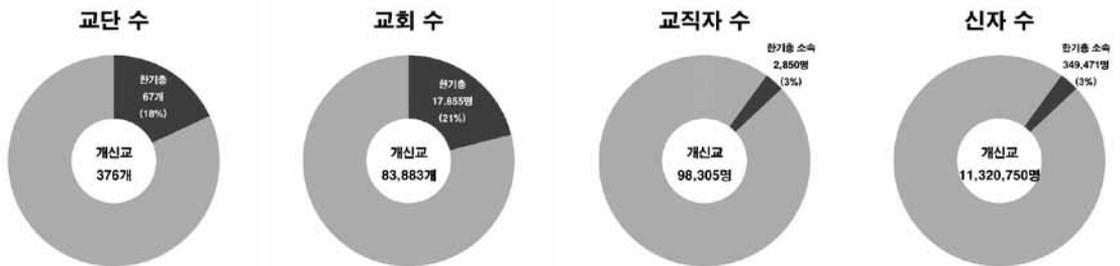
같은 방법으로 교직자 수, 신자 수를 파악해보면, 한국 개신교 전체의 교직자 수는 98,305명, 신자 수는 11,320,750명인데 비해 한기총에 소속된 교단의 교직자 수는 2,850명, 신자 수는 349,471명으로 한국 개신교 전

체에서 약 3% 수준에 불과하다. 앞서 말했던 자료에는 교직자 수와 신자 수가 표시되지 않은 교단이 많다. 하지만 대부분 규모가 작은 교단임을 감안할 때 극단적으로 수가 증가했을 가능성은 없다.

정리하자면, 한기총은 한국 개신교에서 교단 수 18%, 교회 수 21%, 교직자 수 3%, 신자 수 3%가 소속된 단체다. 다른 수치에 비해 교회 수 비율이 높은 것은, 한국에서 교회가 많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단 수	교회 수	교직자 수	신자 수
한국 개신교 전체 (A)	374	83,883	98,305	11,320,750
한기총 소속 (B)	66	17,855	2,850	349,471
B/A (%)	18%	21%	3%	3%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한국의 종교 현황>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한국의 종교 현황>

한기총이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

이렇게 통계를 살펴본 것은 단순히 한기총이 소수이므로 대표 자격이 없다고 말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그런 논리는 경계해야 하며, 우리 사회는 소수의 목소리를 더 잘 경청해야 한다. 하지만 한기총의 경우는 늘 규모를 언급하며 한국 개신교를 대표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팩트체크’를 해본 것이다.

한기총이 한국 개신교의 대표가 아닌 진짜 이유는 그들의 주장이 신앙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최근 6개 이단 연구단체는 한기총이 이단옹호기관으로 변질되었다며 자진해서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개신교 원로 31인도 전광훈의 행태에 대해 “반성경적, 반복음적 폭거이고 신앙적 타락”이라고 비판하며 정치를 하고 싶으면 목사직을 내려놓고 하라고 권고했다.

교회는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화해를 복돋아야 한다. 정의를 말하고 약자의 편에 서야지, 궤변을 늘어놓으며 일개 정파를 선전해서는 안 된다. 한기총과 전광훈의 막말과 기행은 한두 번 주목을 받겠지만 결국 고립과 한기총 해체를 앞당길 것이다. 언론은 관심을 끊을 것이고, 정치인은 발길을 끊을 것이며, 진짜 보수적인 교단들은 관계를 끊을 것이다. 한기총의 미래는, 없다. **한기총**

명성교회 불법 세습 시도 타임라인

#1 세습금지법 제정

2013.09.12. 명성교회에서 열린 예정통합 총회, 세습방지법 제정(총대 1,033명 중 870명 찬성, 84%)
2013.11.12. 김하나 목사, “총회 결의는 하나님의 뜻, 역사적 요구, 변칙이나 술수 없을 것” 발언

#2 세습 시도

2014.03.08. 새노래명성교회 창립예배(담임 김하나 목사)
2017.03.11. 명성교회 당회, 새노래명성교회와 합병하기로 결의, 공동의회 안건으로 상정
2017.03.19. 명성교회, 공동의회를 열어 합병, 청빙 등 세습안 가결
2017.10.24. 서울동남노회, 파행 속에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청빙안 가결
2017.11.12.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원로목사 추대 및 김하나 목사 위임식 강행

#3 저항의 시작

2017.11.14. 장신대 총학생회, 미스바광장에서 명성교회 세습반대 기도회 진행
2017.11.22. 세반연, 예정통합 총회 회관 앞에서 ‘명성교회 세습반대 릴레이 1인 시위’ 시작
2018.01.02. 명성교회 주일학교 교사 105명, ‘명성교회 세습 사태에 대한 교회학교 교사들의 입장’ 발표
2018.02.12. 명성교회 향촌직 교인 134명, 장신대에서 김하나 목사의 사임을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

#4 오락가락하는 재판

2018.03.13. 예정통합 총회재판국, 서울동남노회 임원선거 무효 판결 (회의 진행한 임원들 자격 없음)
2018.08.07. 예정통합 총회재판국, 무기명투표 결과 8:7로 원고 기각 (명성교회 불법세습 용인)

#5 저항의 확산

2018.08.08.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재판에 반대표를 던졌던 재판국원 7명 중 6명 사임
2018.09.06. 세반연,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명성교회 세습반대 촛불문화제 진행
2018.09.07.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 재심 청구

#6 세습의 완패

2018.09.11. ‘은퇴한’ 목회자의 경우 대물림이 가능하다는 헌법위 해석 부결 (총대 1360명 중 반대 849표)
2018.09.12. 재판국원 15명 전원 교체 결의
2018.09.13.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회가 청빙안을 반려한 것이 법 위반이라는 규칙부 해석 부결
2018.09.13. 김하나 목사의 청빙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재판국 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의
2018.10.30. 서울동남노회 제75회 정기회 개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

#7 세습승배자들의 반격

2018.12.20. 명성교회 세습 옹호하는 예정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예정연, 대표회장 최경구) 결성
2019.04.09. 대구동노회, 정기회에서 세습금지법 폐지 또는 보완 청원 결의
2019.04.11. 진주남노회, 정기회에서 세습금지법 삭제 요청 결의
2019.04.25. 서울동북노회, 정기회에서 세습금지법 폐지 헌의안 결의

#8 끝까지 저항한다.

2019.05.24. 장신대 총학생회 · 신대원학우회 · 여학우회 · 교수모임, 명성교회 세습철폐를 위한 걷기대회 진행
2019.07.06. 104회 총회 대의원 대책위원회, “103회 총회 결의 이행하는 신속한 판결 촉구” 성명서 발표
2019.07.09. 바른 재심 판결 촉구를 위한 명성교회 세습반대 문화제 개최
2019.07.10. 장신대 교수모임, “총회재판국의 합법적이고 공의로운 판결 촉구” 성명 발표
2019.07.11. 명성교회세습철폐를위한예정연대(목회자 모임), “총회재판국에 공정한 판결 촉구” 기자회견

… 2019.07.16. 총회재판국, 재심 또다시 연기 (끝)

자발적불편운동 여름캠페인

그리스도인도 제로 웨이스트

지구별에 사는 생명체 중에서 오직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만이 쓰레기를 만듭니다. 세상이 발전할수록 쓰레기양도 늘어났죠. 늘어난 쓰레기는 지구별을 파괴하고 이웃 생명을 해칩니다. 썩지 않는 쓰레기에 오염된 땅, 비닐봉지 80개를 삼키고 죽은 고래,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꽂힌 해 죽은 바다거북...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라이프 스타일을 갖자는 취지의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윤실 자발적불편운동은 여름캠페인으로 그리스도인도 창조세계를 지키는 마음으로 제로 웨이스트 운동에 동참하기로 하고 “그리스도인도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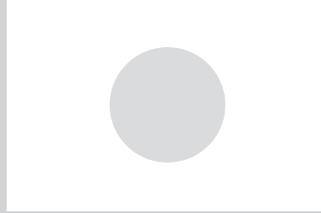
실천과제는 구체적인 하나의 행동으로 정하기로 하고, 텀블러 사용하기를 꼽아보았습니다. 텀블러 사용하기는 이미 많이 알려져서 진부할 수도 있지만, 또 한 편으로는 신경을 쓰고 챙기지 않으면 놓치지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캠페인 구호를 “불편해도 텀블러, 진부해도 텀블러, 또또또또 텀블러”라고 표현해보았습니다.

불편해도 텀블러, 진부해도 텀블러, 또또또또 텀블러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커피 한 잔을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플라스틱 컵에 플라스틱 빨대를 씁니다. 플라스틱은 값이 싸고 가공이 쉬워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잘 썩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기껏해야 몇 년 사용하고 버려질 텐데 땅에 묻으면 수백 년 동안 썩지 않고 그대로라고 합니다.

한국은 그나마 플라스틱 재활용을 잘하는 나라에 속합니다. 하지만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데 한계도 명확해서 수거되는 플라스틱의 5~10% 정도만 재활용된다고 합니다. 또 재활용해도 품질이 낮아 화분이나 보도블럭용 이외에는 쓸 곳이 마땅치 않다고 하네요. 또 플라스틱이 분해되어 '미세 플라스틱'이 되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심지어 생태계 최상위인 사람이 은연 중에 먹게 되는 끔찍한 일도 생깁니다.

한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은 플라스틱 컵이나 빨대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컵과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불편한 일이지만 창조세계를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는 사역이 됩니다.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라 믿습니다. 불편해도 텀블러! 진부해도 텀블러! 또또또또 텀블러! 함께 동참해주세요.



적대적 한·일 관계

바로잡을 수는 없나

글_ 조용래(광주대 초빙교수, 전 국민일보 편집인·대기자)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면서도 이웃사촌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했다. 두 나라는 식민지 지배·피지배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데다 무엇보다 그 아픈 과거를 말끔하게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에도 '가깝지만 먼 나라'라는 형용모순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었다. 그 간 한국은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끊임없이 요구했고 일본은 국교 정상화 당시 체결한 한·일 기본조약과 4개 협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과거사 청산 미흡했던 1965년 한·일 협정

1965년의 한·일 기본조약과 4개의 부속 협정은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다. 조약은 1910년 한·일 합병의 불법성과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당시 박정희 군사정권이 한국의 자본 부족 해소와 대일 경제협력 등 눈앞의 성과를 우선한 결과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셈인데, 조약 체결 이후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은 꾸준히 확대돼 왔음 또한 사실이다.

조약은 한·일 간 체결된 것이기에 일반적으로 수정할 수 없다. 더구나 한국 정부는 지난 50여 년 동안 조약의 수정을 제기한 바 없다. 한국이 과거사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일본은 한·일 기본조약을 앞세울 뿐이었다. 여기에 뜻밖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한국의 사법부였다.



1965년 12월 17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일조약 비준서에 서명하는 것을 정일권 국무총리, 이동원 외무 장관, 김동조 한일회담 수석 대표가 지켜보고 있다.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서 뒷짐만 지고 있던 정부를 문제 삼았다.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不作爲 부작위)을 들어 이를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뒤늦게 등 떠밀리게 된 정부는 부랴부랴 일본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고 그 결과는 졸속으로 나타났다. 바로 2015년 12월 위안부 한·일 합의였다.

징용자 건에서는 대법원이 나섰다. 2018년 10월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

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본은 예상대로 크게 반발한 반면 한국 정부는 사법부 뒤에 숨어버린 듯했다.

역사문제에 대한 사법부 판결은 또 다른 불씨

한국 정부는 소극적이었다. 작년 10월 대법원 징용피해자 배상판결 후 1주일 만에 나온 이낙연 국무총리의 성명이 사실상 대응의 전부다. 성명은 “사법의 판단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현명한 대처를 요망한다”고 했다.

오래 끌어온 한·일 간 역사문제 공방에 대해 한국 사법부가 속 시원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다만 민주국가에서 요청되는 사법부 존중 태도는 일본에서도 똑같다. 한국의 징용 피해자들은 1990년대 이후 총 12건의 소송을 일본 법정에 제기했지만 단 한 건의 중재합의를 빼면 모두 원고 패소로 끝났다. 물론 일본 사법부의 판결은 용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일본 정부도 사법부 존중 프레임으로 나온다면 어찌하나. 일본의 사법부는 틀렸고 한국의 사법부만 옳다고 할 텐가. 결국 역사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은 또 다른 한·일 양국 간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간 소통 흔들리면서 대립 사태 키워

올 5월 일본 정부는 제3국 인사가 참여하는 중재위원회를 열자고 한국에 통보했다. 1월 한국 정부에 관련 협의를 요청했지만 4개월이 넘도록 응답이 없어서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게 이유였다. 그 사이 한·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의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과 일본의 비난, 12월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으로 촉발된 양국의 갈등 등.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 차원에서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강행시기가 7월 중으로 다가오면서 일본의 반발 수위는 더욱 고조됐다. 특히 6월 27-28일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본은 한국에 관련 해법을 강하게 요구했다. 침묵하던 한국 정부는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과 과거 청구권 자금으로 설립된 한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기금을 마련해 문제를 풀자고 대응했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난색을 표했고, G20 개최국이면서도 한국과의 정상회담마저 기피했다. 한·일 정부 간 대화는 정말로 단절 상황이다.

급기야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는 7월 4일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선포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생산에 없어서

는 안 될 일본의 첨단 화학소재 3품목에 대해 포괄수출허가방식에서 개별허가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다. 포괄허가 방식은 한 번 신고로 3년 동안 신고 없이 자유롭게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종의 우대조치인데 일본은 2004년부터 한국에 적용해왔다.



반도체 핵심 품목 수출 규제 조치를 하루 앞두고 열린 일본 여야의 당수 토론회에서 아베 총리는 이번 조치가 양국 역사 문제 등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고 부정했다. (출처: KBS1 Youtube 캡처)

수출규제 도발, 대응은 단호하되 신중하게

아베 정부는 대한 수출규제가 단지 우대조치를 없애는 것이므로 세계무역기구(WTO) 차별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WTO에서 다툼의 여지는 크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북한 경제제재에 소홀할 가능성이 크다는 엉뚱한 이유를 거론하는 등 우대조치 폐지 이유가 정치적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격화되기 시작한 한·일 간 갈등요인에서 비롯된 경제보복이며,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우파 표를 의식한 의도된 도발이다.

아베 총리의 선택은 그야말로 퇴행적이다. 과거 한국의 보수정권이 코너에 몰렸을 때 반일감정을 부추겨 이를 회피하려는 악습을 재현하는 모양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한국 정부로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이나 신중해야 한다. 일부에서 거론되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 등은 효과도 낮고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 수출규제에 대해 일본의 시민사회를 비롯해, 보수 매체를 포함한 대부분의 일본 미디어는 비판적인 입장이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의 정부와 시민사회는 자유무역주의를 훼손하려는 도발을 단호하게 고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그 이상의 불필요한 적대적 반응은 자제해야 한다. 당장의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양국의 미래까지 내다보는 차분함이 요청된다.

적대관계의 또 다른 원인은 상호 이해 부족

WTO 제소, 첨단 핵심소재 자립 노력 등도 필요하다. 그 이상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 일본에 대한 한국 사회의 감정적이고 막연한 인식부터 점검해야 한다. 우리의 일본과 일본인, 일본 사회와 한·일 관계에 대한 이해는 상투적이며 감정적이다. 일본 역시 한국 이해가 대단히 부족하고 특히 식민지로 지배당했던 한국의 아픔에 둔감하다.

흔히 한국에서는 일본에 대해 과거사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이 없었다고 말한다. 과연 그런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담은 '고노 담화'(1993),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1995), 일본의 조선 병합이 강제적으로 이뤄졌다고 고백한 '간 담화'(2010) 등엔 나름 반성과 사죄가 담겼다. 한국의 잦아드는 한참이나 미흡하지만 일본 정부의 결정이기에 의의가 있다.

물론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우익 정치가들이 일본 정부담화를 부정하는 발언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국회에서 추궁을 당하면, 심지어 아베 총리까지도 담화를 계승한다고 답한다. 내각 결의를 통해 나온 일본 정부담화들은 앞으로도 부정될 수 없다. 반성과 사과를 막연히 말하기 전에 그간 일본 정부가 내놓은 담화 내용에 입각해 따지고 요구해야 한다.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일본국헌법 9조는 '전쟁 포기와 전력 불보유를 선언하고 있어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47년 시행 이래 지금까지 건재하다. 아베 총리가 9조 개정을 노리고 있지만 일본 시민사회의 반발 또한 여전하다. 양국의 협력적 미래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도모한다면 일본 시민사회의 노력을 평가하고 그들과의 연대도 필요하다.

한·일 관계 회복 불가능하지 않다

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선포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하 공동선언)'을 보자. 공동선언은 전후 일본의 평화 노력, 한국의 민주화·산업화 성과 등을 평가하는 한편 양국의 협력적 미래와 역내의 평화를 21세기 비전으로 내세웠다. 안타깝게도 공동선언은 오래 계승되지 못했으나 협력의 기억마저 지워진 것은 아니다. 서로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한 지금 공동선언 정신은 더욱 절실해졌다.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조인식을 진행하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내각총리 (출처: 대통령 기록관)

정부는 정부대로 대일 관계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65년 조약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폐기하고 새로 짤 것인지, 과연 그게 가능하겠는지, 부분적으로 수정할 것인지, 수정보다 운용 차원에서 보완할 것인지, 애매한 태도로는 곤란하다. 식민지 지배, 사과, 반성 등의 용어로 일관하는 스테레오 타입의 대일 외교로는 문제해결은커녕 불신만 확산시킬 뿐이다.

한국의 시민사회, 특히 기독교시민사회도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감정에 맡기기보다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이해를 전제로 대응해야 한다. 서로가 전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배려의 감정이 생기고 갈등의 치유도 가능하다. [한일](#)

*이 글은 2019년 7월 8일에 기고되었습니다.

<좋은나무> 구독신청

교회와 사회의 현안에 대한 신선한 관점, 건강한 생각을 제공하는 <좋은나무>를 구독해주세요.

<좋은나무>의 글은 이메일,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나무>페이지 <https://cemk.org/goodtree/>

<좋은나무>소개 <https://cemk.org/8880/>

<좋은나무>구독신청 <http://bit.ly/좋은나무구독신청>

<좋은나무>가 1년 간 걸어온 길

- 좋은나무 1주년 기념 설문조사 결과 요약

1. 기윤실 <좋은나무> 사역 개요 - 2019년 7월 10일(수) 기준

※ 발간한 글의 수 | 총 168개

교회	사회	문화	과학·기술	성경·신학	복리뷰
36	61	18	28	55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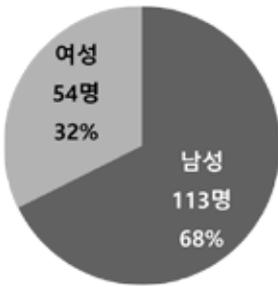
* 일부 글은 카테고리가 겹침

※ 정기구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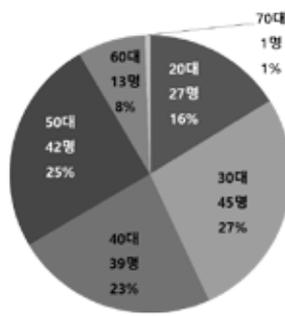
KakaoTalk Plus친구 1001명 facebook 720명 뉴스레터 606명 Instagram 98명

2.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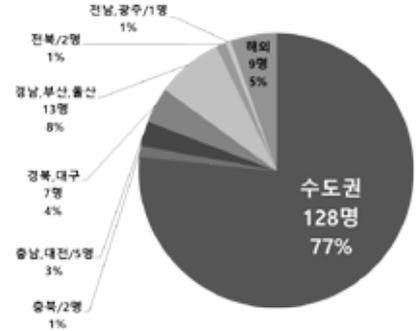
※ 독자 분석 | 총 167명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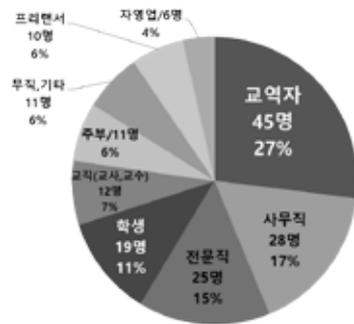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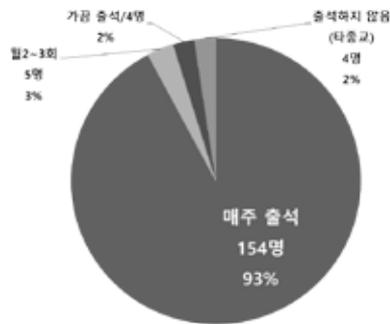
연령대



거주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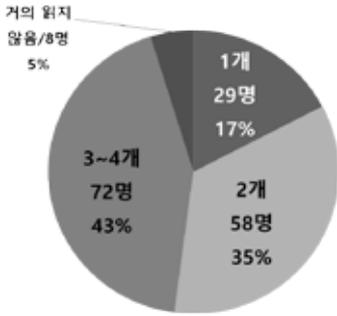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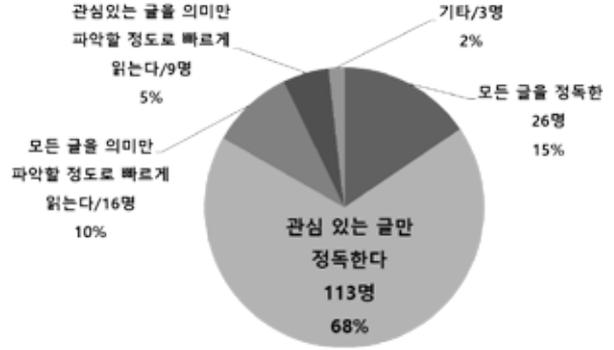


교회출석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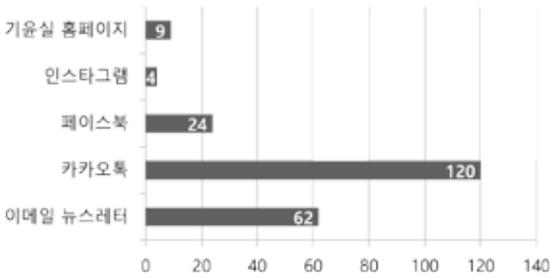
※ 독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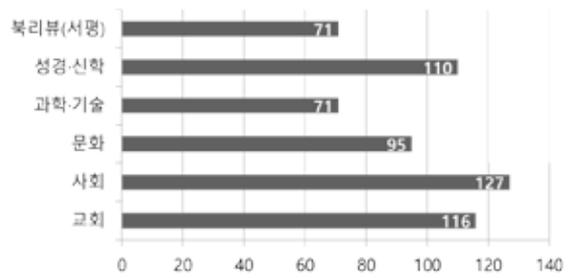
읽는 횟수



읽는 방식



구독 채널(중복 가능)



본인에게 가장 유용한 카테고리(중복 가능)

※ 독자반응(일부 발췌)

독자와 소통하기 위해 서평 이벤트나 글 공모 이벤트 등을 기획해 주면 좋겠다.

정치 이슈는 줄이고 올바른 신앙 양육을 위한 내용을 많이 다루어 주길 바란다.

필진을 좀 더 다양하게 하여 다양한 시선을 제시하면 좋겠다.

독자들이 질문하고 필진 중의 전문가가 답변하는 기획을 제안하고 싶다.

관점에 균형을 갖추기 위해 같은 주제를 다른 다른 입장의 글도 실으면 좋겠다.

대학 졸업 후, 사회와 신앙 영역을 연결하는 공부의 갈급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좋은나무> 글을 보여 도움을 받고 있어 다행이고 감사하다.

시의적절한 목소리를 내 주어 감사하다. 빛과 소금 같은 글 늘 부탁드린다.

매우 감사하다. 한국 기독교의 한 가닥 맑은 물이다.

글로벌한 사건에 대해서도 성경적 세계관으로 해석해 주면 좋겠다.

* 본 설문조사의 결과를 자세히 보시려면 <https://cemk.org/13796/> 로 접속해주세요.

* 본 통계자료는 <좋은나무>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자세히 보기



진실 이후에 대한 질문을 던지다

<좋은나무>발간 1주년 기념 강연

“Post-Truth: 거짓과 진실을 찾아서” 후기

글. 윤신일 간사

진실이란 어디에 있을까요? 진리란 어디에 있을까요? 진실과 진리가 모호해진 현 시대의 현상을 가리켜 “Post-Truth(탈진실)”시대라고 합니다. 미국 칼빈신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시는 강영안 교수님께서 <좋은나무> 편집위원 모임에서 여러 가지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시던 중에 “Post-Truth”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 위원께서 이를 주제로 강연을 열 것을 제안 하셨습니다. 그 순간, 강연을 위한 기획회의가 진행되었고 날짜, 장소를 7월 11일(목) 오후 7시 30분, 한국기독교교회관 조예홀로 확정하였습니다.

급하게 기획된 세미나 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가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대관한 홀에 자리가 없지는 않을지 걱정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참가신청을 하지 않고도 여러 교회와 대학교에서 단체로 강연장을 찾아주었습니다. 20대 청년부터 60대 이상은 되어 보이는 어르신까지 전 연령층이 한 자리에 모여 강영안 교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영안 교수님은 “Post-Truth”시대를 설명할 때 ‘가짜뉴스’를 빼놓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가짜뉴스’ 현상은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

니다. 한국교회와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진 '가짜뉴스'가 진실을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어떤 정보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객관적인 사실이나 명백한 증거 보다는 주장이나 의견을 대중들이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듣기 좋거나 듣고 싶은 이야기, 자극적인 이야기를 진실로 믿는 이들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근본 없는 소문들이 사실인 양 유포가 되는 이유는 이를 믿고 타인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보다 그것을 그저 '참'으로 확산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가짜뉴스'가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가짜뉴스'로 의심되는 문건을 확인했을 때, 그것이 참일 경우 누가 이득을 보는지, 어떤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인지를 다각도에서 따진 다음 그것을 믿어도 늦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4장 13절의 예를 들면서 '진실'과 '거짓'에 관한 문제에서 개신교인은 누구보다도 기민한 태도를 가지고 편견을 제거하여, 모든 것을 공정하고 정직한 시선으로 바라볼 것을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현 시대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분열의 시대'가 아닐까 합니다. 요즘 같이 국론이 분열되고, 정당이나 집단 간의 이념차와 의견 대립이 심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무엇일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 참, 사실의 편에 서고 그것을 가려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떠나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날에도 흔쾌히 강연을 수락해주신 강영만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홍보 기간이 짧았음에도 강영만 교수님의 강연에 참석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기실**

포럼 후기 <공정한 선거, 절차를 넘어 결과까지>

“선거제도는 국회 밥그릇이 아니라, 국민 밥그릇이다.”

글. 최진호 간사

선거제도 개혁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제도 문제는 국회 밥그릇 싸움이기도 하고, 그 주도권을 쥔 거대 양당의 의지가 없다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불가능의 영역으로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선거제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다시 그 논의의 불씨를 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운 실은 “공정한 선거, 절차를 넘어 결과까지”라는 주제로 2019년 6월 5일(수) 저녁 7시, 열매나눔재단 나눔홀에서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첫 발제를 맡은 하승수 공동대표는 “정치와 삶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정

치가 바뀌어야 정책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삶이 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선거제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하 공동대표는 “만약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가 바뀌게 된다면,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고, 이로 인해 다양한 정당과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며, 정쟁을 일삼던 국회가 정책 위주의 대결로 바뀔 것”이라고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윤환철 사무총장은 과거 공명선거운동이 선관위를 압박하여 후보자의 정보(병역, 납세, 전과, 재산) 공개를 용이하게 하였으며, 개표 과정에서의 오류들을 발견하여 바로잡기도 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현재 개신교 내에

서의 공명선거운동이 다른 일반 시민단체들에 비해서 많이 약화되었지만, 앞으로 ‘공명선거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였습니다.

글을 마치면서 하승수 공동대표가 참고 자료로 넣어준 글과 그림이 생각납니다.



©하승수 제공

“선거제도는 국회의원 밥그릇이 아니라, 국민 밥그릇이다.”



©기운실

위의 포스터는 1918년 스위스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둘러싼 국민투표를 앞두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왼쪽의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에서는 힘 있고 돈 있는 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만, 오른쪽의 비례대표제로 바꾸면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치가 가능해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 공동대표는 언급합니다.

특권과 오만으로 가득한 국회로부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밥 그릇을 챙기려면 결과로서 공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이 절실히 보입니다. **기운실**

평신도의 상상력 ‘두 번째 이야기’

“평신도 점-프” 후기

글. 박제민 팀장



기윤실은 기독교경영연구원, 기독교법률가회, 좋은교사운동 등 평신도 전문인 단체와 함께 올해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평신도의 상상력”이란 모임을 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망원동 창비학당에서 ‘두 번째 이야기’가 열렸습니다.

이 날의 주제는 “평신도 점-프: 모험은 시작됐어!”였습니다. 랩퍼 마미손의 노래 “소년점프”를 패러디한 것인데요. ‘첫 번째 이야기’가 평신도 신앙은 왜 실패했는지 살펴보는 자리였다면, 이번 ‘두 번째 이야기’는 평신도 신앙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발제는 오랫동안 평신도 신학에 대해 연구하신 송인규 교수(한국교회탐구센터)는 목회자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목회자가 가져야 할 권위는 ‘직분적 권위’가 아니라 ‘실질적 권위’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목회자라는 이유만으로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실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성품적 권위’를 갖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목회자의 역할을 맡은 한 사람의 성도로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감동을 주는 성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평신도 신앙의 시작을 이야기 하는데, 목회자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 할까요. 평신도나 목회자, 이 두 개념은 서로를 구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모두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이고 자매/형제인 것이죠. 하지만 목회자들 스스로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목회자에 대해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고 고쳐 나가는 것에서부터 평신도 신앙을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발제 후에는 기윤실 박제민 이사님을 비롯해, 이형재 교수님(기독교경영연구원), 백현수 변호사님(기독교법률가회), 송하영 교사님(좋은교사운동), 박정민 참가자님(‘첫 번째 이야기’ 참가자)의 짧은 발제가 이어졌고, 기윤실 바른가치운동 본부장인신 목광수 교수님(서울시립대 철학과)의 사회로 참석자 전원이 함께 하는 토론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 이어 ‘두 번째 이야기’도 뜨겁게 진행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모여 한국 교회와 평신도 신앙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 모임을 통해,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평신도의 상상력이 바르게 잘 모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9월에 예정된 ‘세 번째 이야기’에 와주세요.

한국 개신교의 혐오를 분석하다

시민의식조사 결과발표 후기

글. 김혜령(이화여대 호크마교양대학 교수)

이 글은 지난 6월 15일(토) '한국적 혐오현상의 도덕적 계보학 연구단'이 주최하고, 기윤실 기독교윤리연구소에서 주관한 "한국 개신교의 혐오를 분석하다: 합당한 자성과 책임을 모색하기 위하여" 세미나의 후기입니다. 필자인 김혜령 교수는 연구 책임자로서 4명의 연구진(성신형, 이은아, 이봉석, 송진순)과 함께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2017년부터 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자료집(발표 자료 포함)은 기윤실 홈페이지(자료실→자료집)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URL 주소: <https://cemk.org/resource/13487/>)



한국사회에 혐오가 심각한 문제이며 그중에서도 교회가 혐오 현상의 중심에 있다고 다들 걱정하기 시작하던 시기에 우리 연구단도 이 연구를 시작하였다. 혐오와 도덕, 혐오와 종교의 관계를 1,000명의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했던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개신교 신학자들이 대부분인 우리의 마음은 늘 편치 않았다. 그러나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교회 내부의 혐오 현상을 직시하고 분석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올해 초 2년간 진행된 연구의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 성과를 가장 쓸모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한국 개신교의 윤리 회복을 위한 운동을 오래 치열하게 펼쳐온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정병오·배종석·정현구 공동대표) 산하의 기독교윤리연구소(소장 고재길 교수)와 함께 연구 결과

를 소개하는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발표회 당일에는 60여 명의 청중이 발표장을 찾았고, 한국 개신교 교회의 혐오 지형에 대해 깊은 우려의 마음으로 진지하게 발표를 듣고 질문도 제기해 주었다. 젊은 연구진으로 구성된 우리 연구단이 교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관인 기윤실을 통해 연구 성과를 확산·공유할 수 있게 되어 감사했다.

우리가 연구 주제로 삼은 '혐오'는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적인 미움의 감정과는 구별된다. 혐오란 사회 속에서 특정 집단이나 집단에 속한 개인에 대해 (이미 존재하는) 차별을 고착화시키거나 재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미움의 감정이다. 즉 한 사회의 역사, 문화, 정치, 종교 등의 복합적 요소에 근거하여 '차별받는 대상'이 되었던 '소수자 개인'이나 '소수자 집단'을 향한 미움이 혐오이다. 이러한 정의에서 볼 때, 한 사회의 '기득권층'이나 '다수'에 대한 미움은 그들에 의해 상처받는 취약자들이 품는 '분개'하는 미움이거나 혹은 그들이 받는 부당함에 공감하며 함께 분개하는 '정의감'에서 나온 감정이기때 개념상 혐오라고 부를 수 없다.

우리는 최근 몇 년간 한국사회를 갈등 국면으로 치닫게 하였던 네 종류의 혐오 현상, 즉 여성, 노인, 난민, 성소수자 혐오에 관련된 시민들의 혐오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총 5개 분야와 42개의 하위 문항을 1년간의 연구 과정을 통해 설계하였고, 전문 여론 설문 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를 통해 올해 초 한국사회의 인구 구성 비율에 맞춰 모집된 1,0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개신교인들의 결과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개신교 응답자를 약간 더 오버샘플링(oversampling)하여 조사하였으나, 이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의 다른 요소들을 그대로 유지하였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이 지면을 통해 다시금 강조한다. 또한 본 연구단은 단순히 수집된 결과를 양적으로 대표화하는 기초적 방식에서 더 나아가, 사회통계학 일반에서 사용되는 검증 과정을 사후에 모두 거친 자료를 행사 당일에 공개하여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다.

그러나 우리의 주된 목적은 단순히 한국의 시민들이나 개신교인들에게 나타나는 혐오의 종류와 정도를 통계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아니었다. 5명의 연구진 중 3명이 개신교 윤리학자였으므로 그 전문성을 살려서, 혐오의 감정이 어떻게 아이러니하게도 시민사회와 교회에서 오히려 도덕적 우월성과 결합되어 혐오의 대상이 되는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들을 사회와 교

회의 질서와 세계관을 위협하는 위험적 인자로 인식하게 만드는지, 나아가 이들의 존재와 기본권을 축소하거나 차별하는데에 '정당하게' 사용되는 합당한 증오 감정으로 둔갑하는지 그 계보를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시민사회 안에서 개신교 교인들의 혐오가 지닌 비차별성과 특이성을 모두 파악할 수 있었다. 우선 노인혐오와 관련해서는 개신교인들과 비개신교인들의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난민혐오 부분 역시 두 집단 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모두가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이슬람 난민과 관련하여서는 비개신교인들에 비해 개신교인들의 혐오가 상당한 수준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혐오와 관련해서도 개신교인들과 비개신교인들의 차이가 두드러진다고 할 수는 없었으나, 이러한 통계 결과가 보여주는 것이 실제로 개신교인들의 삶 속에서 여성차별과 혐오가 두드러지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성차별에 대한 민감성과 인지능력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조사한 혐오 현상 중 가장 두드러진 수치를 보여주는 것은 성소수자 혐오 영역이었다. 성소수자에 대한 거부 입장을 비윤리적인 혐오로 정의하느냐, 아니면 개신교 복음에 입



각한 정당한 비판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신학적 논쟁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과감히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의 존재를 인정하고 연구를 진행한 이유는, 그것이 혹여나 개신교 교회가 복음의 입장에서 취한 '자연스러운' 거부나 '합당한' 미움이라고 하더라도, 다양성 존중에 기초한 시민사회에서 결국 타자의 존재와 기본권을 제한하는 전통적인 차별의 구도를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혐오' 일반의 개념 정의에 정확히 귀속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소수자 혐오가 전통적인 관점에서 도덕성이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정 종교와 상관없이 비종교인들보다 종교인들이 전반적으로 더 높은 비율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지니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종교들 중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비율은 개신교인들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종교인들 중 가장 낮게 나타난 가톨릭 교인들과는 매우 상반된 결과이다. 연구 분석에서 유의 깊게 봐야 할 것은 개신교인들 중 교회에 열심히 나가거나, 교회의 도덕이 사회적 영향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성소수자 혐오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또한 복음을 예배나 성직자에게서 배웠다고 하는 개신교인일수록, 담임 목회자의 설교가 복음에 잘 부합한다고 응답한 사람일수록 성소수자 혐오 정도도 함께 상승한다는 점이다. 또한 개신교인 응답자 중 63%가 동성애는 성경에서 금지한 죄라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종합하자면, 성소수자 혐오는 한국교회의 근본주의적 성향과 정치적 보수주의, 교권주의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통계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의 연구단의 조사 의도와 목적, 결과에 여전히 불편하거나 의심을 품은 개신교인들이 있을 수 있다. 기존의 인간관, 세계관, 복음관에 따르면 혐오 대상으로 지목된 이들이 여전히 미움 받거나 차별받아 마땅한 자들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미움이 오히려 그들을 복음으로 선도하는 일이며, 그래서 사랑이라고 주장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혐오가 바로 그런 것이다. 혐오는 혐오하는 자가 잘 알 수 없다. 혐오는 늘 정당해 보이는 위치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수의 복음이 사회와 종교의 질서를 유지하는 도덕을 앞세우는 자들 앞에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지탄받았던 자들에 대한 우선적인 '결에 있음'이자 '편둠'이었음을 신실한 그리스

도인이라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혐오를 수단으로 삼는 종교 도덕은 예수에 의해 이미 오래전에 철저히 해체되었다. 예수 사역의 핵심은, 유대 공동체가 오랫동안 율법을 방패 삼아 역겹거나 부정하다고 취급하며 공동체로부터 축출하거나 차별하였던 이들과 동행하는 일이었다. 그는 유대 사회에서 거룩한 유대인이라면 접촉을 금했던 한센병자, 창녀(이하 성매매 여성), 그리고 사마리아인들과 거침없이 함께 먹고 마시며 복음을 전하였다. 유대 공동체는 한센병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그 부모나 그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한센병자에 대한 혐오를 그들의 죄에 대한 정당한 분노라 확신해 왔다. 한센병자에 대한 예수의 치유 사역은 무지와 미신에 사로잡혀 죄 아닌 것을 죄로 단갑시켜 차별하였던 이들의 혐오의 도덕을 해체시켰다. 예수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리”는 말씀과 침묵으로써(요 8:6-8), 남편이 아닌 자와 살다가 끌려온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던 유대인들의 손에서 결국 돌을 내려놓게 만들었고, 보살피려 하는 이 하나 없는 가난한 여인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저지르게 된 성매매의 죄를 혐오로 대하지 않고, 그를 오히려 제자가 되는 새 삶으로 부르심으로써 용서와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종교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이 아시아와 바빌로니아 제국으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 땅에 버려졌던 사람들의 혼종적 후손인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고 꾸짖거나 그들의 존재를 부정하기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새로운 때가 왔다고 선언하며 사마리아인을 있는 그대로 새 시대로 초대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는 소수자를 배척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던 혐오의 종교 도덕을 완전히 해체하며, 하나님 나라의 새 도덕은 차별받는 자들에 대한 개방과 환대의 도덕, 즉 사랑의 도덕에만 기초함을 선포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결국 개신교의 윤리성은 오늘날 가장 차별받고 결국 미움까지 받게 된 약자들과 함께 있어 주고 그들을 편들어 주는 데에서 찾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사회적 약자들이 결국 한 사회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예수 시대의 약자는 과부였고, 한센병자였고, 사마리아인이었다. 교회는, 그리고 개신교인은 전통적인 약자들뿐만 아니라, 역사의 흐름과 함께 사회의 새로운 지배구조 안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부류의 약자들을 찾아내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이 연구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한국 교회가 빠지기 쉬운 나태함과 무지를 일깨우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한철**

회계보고 | 운영성과표 2019 05~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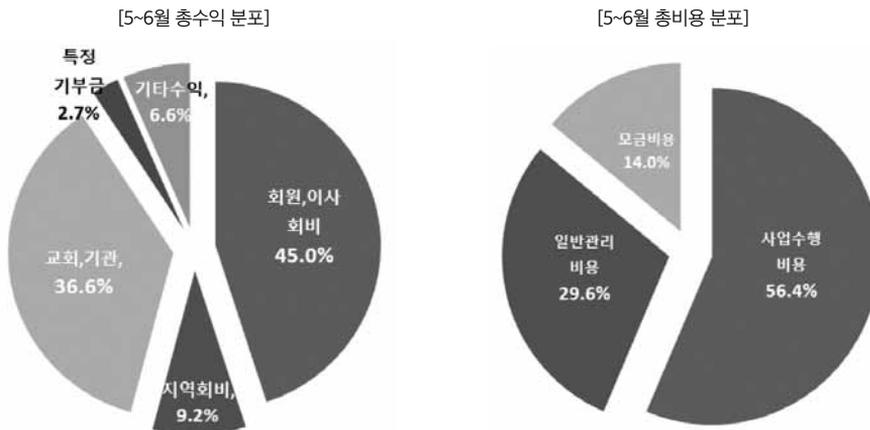
기간 2019년 5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과목	공익목적사업
I. 사업수익	42,351,795
① 회비수익(회원회비/이사회비/지역회비)	23,182,000
② 일반기부금수입(교회/기관후원금)	15,650,000
③ 특정기부금수입(목적후원금/지원후원금)	1,150,000
④ 기타수익(사업후원금/등록비/자료판매비/이자수익)	2,369,795
II. 사업비용	58,248,680
① 사업수행비용(사업인건비, 운동본부/자치기구/협력운동 사업비 등)	32,864,041
② 일반관리비용(행정인건비, 사무관리비, 사무처운영비 등)	17,220,671
③ 모금비용(회원관리비, 소식지제작비, 지역회비전달금 등)	8,163,968
III. 사업외수익	455,880
① 노동부지원금	444,480
② 잡이익	11,400
IV. 사업외비용	- 0
수익 총계	42,807,675
비용 총계	58,248,680
당기 순자산의 증(감)	- 15,441,005

* 2019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순자산은 15,441,005원 감소했습니다.

* 2019년 6월 30일 현재 잉여금은 46,230,808원입니다.

* 수익-비용 분포 그래프



비용 분류 주석

1. 사업수행비용은 법인의 사명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2. 일반관리비용은 인사, 재무, 감독, 관리 등의 제반 비용입니다.
3. 모금비용은 회원정보관리 및 서비스 소식지, 홍보행사 등 기부금 관련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2019년 05~06월
후원자명단



2019년 05~06월 후원자명단

5월

개인 후원금 (565명 / 10,098,000원)

(2천) 권용태 기용서 오동춘 (3천) 남영란 명호중 서동진 손은순 원종민 정영미 (5천) 강민봉 강현주 곽종철 권오재 김경숙 김경호 김규성 김기섭 김기협 김동석 김미혜 김삼숙 김상윤 김상은 김선희 김용미 김재균 김정현 김정훈 김주현 김학빈 김하나 김현아 김혜경 김홍식 김희숙 나영식 남준일 노광섭 노대웅 노승아 문경환 문덕암 박경희 박상돈 박서현 박선이 박은지 박정민 박제민 박환승 배재수 백인남 백지열 범학식 서효정 성우경 손영일 송시성 송종영 송철학 신수현 신희선 엄현식 오창섭 우현기 유창수 유혜원 유희경 윤성우 윤해균 이국운 이근아 이기용 이동혁 이만동 이상철 이선화 이용아 이정은 이종숙 이태희 이하정 이희재 이희열 임영제 장준혁 장창수 진창덕 정경애 정선우 정왕효 조인형 조천권 지상섭 지연심 최경주 최경석 최영애 최용권 최인영 최종원 최진주 추현우 하현주 한기채 한석환 한유식 한창희 홍선희 홍택주 황병일 황선영 (6천) 김은이 (7천) 신명호 유영신 (1만) 강명길 강승문 강승우 강승철 강윤주 강은경 강일구 강정규 강종윤 강진호 강철원 강호인 강희철 고승표 고경순 고정환 공미자 공지태 공헌 권아현 기세충 김광환 김근원 김대인 김두희 김만옥 김말순 김문수 김민아 김병일 김상범 김상정 김성태 김수희 김연기 김영모 김영봉 김영식 김영철 김예운 김요열 김윤서 김윤수 김은수 김은영 김인숙 김재환 김정미 김중호 김준영 김현경 김현태 김형신 김형중 김혜경 김홍환 김효진 김희완 김희정 나희량 남궁설 도낙주 류선민 류성희 류중우 문규 문석윤 문정옥 문현주 민영운 박경춘 박기출 박민선 박상호 박상홍 박수경 박수정 박영민 박윤정 박은하 박의진 박인애 박재장 박정민 박종구 박주현 박지연 박진옥 박진희 박철원 박태영 박혜윤 박홍태 배기홍 배복희 배정호 배진화 백현주 변현정 변화중 서동진 서유미 서일향 설성호 성상현 손상문 손은정 손정아 손현성 손현화 송미우 송병문 송준인 송태현 송형록 신승혁 신은심 신은정 신전수 신창조 심윤아 안보경 안선옥 안은상 안정은 안학서 양민우 양영두 양지혜 오동근 오미영 오상덕 오은석 오진선 옥성일 원영태 유건호 유동원 유영준 유원옥 유정윤 유정인 윤두선 윤민영 윤소영 윤신일 윤양숙 윤태호 이경천 이근두 이금성 이기선 이남경 이덕한 이상규 이선희 이성진 이수진 이수호 이슬이 이예성 이용훈 이용훈 이윤섭 이원영 이필숙 이은성 이의현 이인영 이재민 이재윤 이재현 이정민 이정화 이주환 이지옥 이지행 이진수 이창학 이현숙 이현호 이형조 임미정 임소희 임일택 임종록 임중화 임태규 장규선 장기화 장미혜 장서은 장옥선 장윤희 장혜경 전준갑 정규숙 정동혁 정명숙 정명혜 정상복 정원 정원혁 정유선 정유진 정윤호 정재훈 정혜자 조무성 조병진 조용한 조우철 조정미 조태례 주민선 주선경 지상영 지상섭 진미자 천고운 천무원 천선희 최경화 최병성 최상재 최성수 최성숙 최우석 최용 최인선 최정철 최정희 최지혜 최현지 추진연 태원우 하경열 하만중 하용정 한규완 한민근 한상호 한이수 한재광 한지연 한형열 허남 허성연 허순자 허효일 홍인기 홍일선 홍진중 황병구 황성결 (1만2천) 윤영식 (1만3천) 김은영 (1만5천) 강병관 권명희 김병찬 김상인 김연수 김철성 김태환 박봉순 배정주 안연희 오성만 윤영관 이수정 전희숙 정세열 정화선 최지영 (2만) 강은정 강홍구 고은정 광상배 금은미 김경미 김대인 김동조 김형희 김민숙 김상환 김성진 김세진 김신근 김영아 김인선 김정백 김정욱 김정원 김종필 김진표 김태식 김태훈 김학동 김현정 김홍섭 나종주 남재환 남제현 도종수 박경라 박동훈 박명곤 박명배 박복애 박은미 박판근 박혜리 백경호 백은희 서인선 성영은 송성혜 신국원 신대회 신영현 안병직 양낙홍 오세란 윤상원 위국명 유영열 유혜영 이경진 이만열 이명자 이병환 이석형 이선희 이세명 이수경 이원애 이윤정 이윤현 이종규 이찬석 임지용 장민규 장영상 정명환 정종목 정화조 조성돈 조현영 차연주 최동오 최삼욱 최영석 최윤선 한병선 한신영 한진영 홍관수 홍인중 홍종락 (2만5천) 박세진 (3만) 강석창 강영안 구예리 김문태 김선옥 김영철 김진우 나영진 노지춘 박선영 박재한 박종명 박종민 박종원 박철 서한홍 손기식 손병철 손용기 손진호 송명숙 송성훈 송택호 우미연 유성오 유재균 윤영석 윤혁경 이방욱 이장규 이준복 이천화 임성민 정민경 정철성 정현철 차정아 최혜원 한성준 홍대식 (4만) 김경천 손화철 (5만) 광창대 권장희 김미숙 김용근 김인민 김충환 김혜경 류은혜 목광수 박종운 박종진 박찬기 배지수 백종국 송연자 신은정 여동명 유혜신 이상근 이원근 이원우 이원택 이철진 이희석 정문희 정병오 최광사 최병재 (5만5천) 조홍식 (7만) 송인수 유인복 (10만) 김경래 김일수 박원주 박재우 박호용 석중호 우정록 채홍석 현상원 (12만) 배중식 이상민 (13만) 조원호 (20만) 손병호 (23만) 엄용환 (30만) 정현구

6월

개인 후원금 (559명 / 9,314,000원)

(2천) 권용태 기용서 오동춘 (3천) 김은이 남영란 박정우 서동진 손은순 원종민 정영미 (5천) 강민봉 강현주 곽종철 권오재 김경숙 김경호 김규성 김기섭 김기협 김동석 김미혜 김삼숙 김상윤 김상은 김선희 김연수 김용미 김재균 김정현 김정훈 김주현 김학빈 김하나 김현아 김혜경 김홍식 김희숙 나영식 남준일 노광섭 노승아 문경환 문덕암 박경희 박상돈 박서현 박선이 박은지 박정민 박제민 박환승 배재수 백인남 백지열 범학식 서효정 성우경 손영일 송시성 송종영 송철학 신수현 신희선 엄현식 오창섭 우현기 유창수 유혜원 유희경 윤성우 윤해균 이국운 이근아 이기용 이동혁 이만동 이상철 이선화 이용아 이정은 이종숙 이태희 이하정 이희재 이희열 임영제 장준혁 장창수 진창덕 정경애 정선우 정왕효 조인형 조천권 지상섭 지연심 최경주 최경석 최영애 최용권 최인영 최종원 최진주 추현우 하현주 한기채 한석환 한유식 한창희 홍선희 홍택주 황병일 황선영 (6천) 김은이 (7천) 신명호 유영신 (1만) 강명길 강승문 강승우 강승철 강윤주 강은경 강일구 강정규 강종윤 강진호 강철원 강호인 강희철 고승표 고경순 고정환 공미자 공지태 공헌 권아현 기세충 김광환 김근원 김대인 김두희 김만옥 김말순 김문수 김민아 김병일 김상범 김상정 김성태 김수희 김연기 김영모 김영봉 김영식 김영철 김예운 김요열 김윤서 김윤수 김은수 김은영 김인숙 김재환 김정미 김중호 김준영 김현경 김현태 김형신 김형중 김혜경 김홍환 김효진 김희완 김희정 나희량 남궁설 도낙주 류선민 류성희 류중우 문규 문석윤 문정옥 문현주 민영운 박경춘 박기출 박민선 박상호 박상홍 박수경 박수정 박영민 박윤정 박은하 박의진 박인애 박재장 박정민 박종구 박주현 박지연 박진옥 박진희 박철원 박태영 박혜윤 박홍태 배기홍 배복희 배정호 배진화 백현주 변현정 변화중 서동진 서유미 서일향 설성호 성상현 손상문 손은정 손정아 손현성 손현화 송미우 송병문 송준인 송태현 송형록 신승혁 신은심 신은정 신전수 신창조 심윤아 안보경 안선옥 안은상 안정은 안학서 양민우 양영두 양지혜 오동근 오미영 오상덕 오은석 오진선 옥성일 원영태 유건호 유동원 유영준 유원옥 유정윤 유정인 윤두선 윤민영 윤소영 윤신일 윤양숙 윤태호 이경천 이근두 이금성 이기선 이남경 이덕한 이상규 이선희 이성진 이수진 이수호 이슬이 이예성 이용훈 이용훈 이윤섭 이원영 이필숙 이은성 이의현 이인영 이재민 이재윤 이재현 이정민 이정화 이주환 이지옥 이지행 이진수 이창학 이현숙 이현호 이형조 임미정 임소희 임일택 임종록 임중화 임태규 장규선 장기화 장미혜 장서은 장옥선 장윤희 장혜경 전준갑 정규숙 정동혁 정명숙 정명혜 정상복 정원 정원혁 정유선 정유진 정윤호 정재훈 정혜자 조무성 조병진 조용한 조우철 조정미 조태례 주민선 주선경 지상영 지상섭 진미자 천고운 천무원 천선희 최경화 최병성 최상재 최성수 최성숙 최우석 최용 최인선 최정철 최정희 최지혜 최현지 추진연 태원우 하경열 하만중 하용정 한규완 한민근 한상호 한이수 한재광 한지연 한형열 허남 허성연 허순자 허효일 홍인기 홍일선 홍진중 황병구 황성결 (1만2천) 윤영식 (1만3천) 김은영 (1만5천) 강병관 권명희 김병찬 김상인 김연수 김철성 김태환 박봉순 배정주 안연희 오성만 윤영관 이수정 전희숙 정세열 정화선 최지영 (2만) 강은정 강홍구 고은정 광상배 금은미 김경미 김대인 김동조 김형희 김민숙 김상환 김성진 김세진 김신근 김영아 김인선 김정백 김정욱 김정원 김종필 김진표 김태식 김태훈 김학동 김현정 김홍섭 나종주 남재환 남제현 도종수 박경라 박동훈 박명곤 박명배 박복애 박은미 박판근 박혜리 백경호 백은희 서인선 성영은 송성혜 신국원 신대회 신영현 안병직 양낙홍 오세란 윤상원 위국명 유영열 유혜영 이경진 이만열 이명자 이병환 이석형 이선희 이세명 이수경 이원애 이윤정 이윤현 이종규 이찬석 임지용 장민규 장영상 정명환 정종목 정화조 조성돈 조현영 차연주 최동오 최삼욱 최영석 최윤선 한병선 한신영 한진영 홍관수 홍인중 홍종락 (2만5천) 박세진 (3만) 강석창 강영안 구예리 김문태 김선옥 김영철 김진우 나영진 노지춘 박선영 박재한 박종명 박종민 박종원 박철 서한홍 손기식 손병철 손용기 손진호 송명숙 송성훈 송택호 우미연 유성오 유재균 윤영석 윤혁경 이방욱 이장규 이준복 이천화 임성민 정민경 정철성 정현철 차정아 최혜원 한성준 홍대식 (4만) 김경천 손화철 (5만) 광창대 권장희 김미숙 김용근 김인민 김충환 김혜경 류은혜 목광수 박종운 박종진 박찬기 배지수 백종국 송연자 신은정 여동명 유혜신 이상근 이원근 이원우 이원택 이철진 이희석 정문희 정병오 최광사 최병재 (5만5천) 조홍식 (7만) 송인수 유인복 (10만) 김경래 김일수 박원주 박재우 박호용 석중호 우정록 채홍석 현상원 (12만) 배중식 이상민 (13만) 조원호 (20만) 손병호 (23만) 엄용환 (30만) 정현구

2019년 05~06월 후원자명단

법학식 서효정 성우경 손영일 송시섭 송종영 송철학 신수현 신희선 엄현식 오창섭 우현기 유창수 유혜원 유희경 윤성우 윤해균 이국운 이금아 이기용 이동혁 이만동 이상철 이선화 이용아 이정은 이종숙 이태희 이하정 이혁재 이희열 장준혁 장창수 전장덕 전희숙 정경에 정선우 정왕효 조인형 조찬권 지상석 지연섭 최경석 최영애 최용권 최인영 최종원 최진호 추현우 하현주 한기재 한석환 한우식 한창희 홍선희 홍일선 홍택주 황병일 황선영 (6천) 김원섭 (7천) 신명호 유영신 (1만) 강명길 강승문 강승우 강승철 강윤주 강은경 강일구 강정규 강중윤 강진호 강철원 강호인 강희철 고승표 고정환 공미자 공지태 공헌 권아현 기세충 김광한 김근원 김대인 김동준 김두희 김만옥 김말순 김문수 김미경 김민아 김병일 김보이 김상범 김상정 김성태 김수희 김연기 김영모 김영봉 김영식 김영철 김요열 김윤서 김윤수 김은수 김은영 김인숙 김재환 김정미 김정호 김종호 김준영 김준철 김중환 김학동 김현경 김현태 김형신 김형중 김혜경 김홍환 김효진 김희완 김희정 남궁설 도낙주 류선민 류성희 류종우 문규 문석윤 문정옥 문현주 민영은 박경춘 박민선 박상옥 박상호 박상홍 박수경 박수정 박영민 박윤정 박의진 박인애 박재삼 박정임 박종구 박주현 박지연 박진옥 박진희 박태연 박혜윤 박홍래 배기홍 배복희 배정호 배진화 백용진 백주영 백현주 변현정 변희중 서동천 서유미 서일향 설성호 서상현 손상문 손은정 손재아 손현성 손현화 송미옥 송병문 송준인 송태현 신승혁 신은심 신은정 신진수 신창조 안보영 안선옥 안연희 안은상 안은애 안정은 안학서 양민우 양영두 양지혜 오동근 오미영 오상덕 오은석 옥성일 왕보현 원영태 위국명 유진호 유동원 유영준 유원옥 유정윤 유정인 윤두선 윤민영 윤소영 윤신일 윤양숙 윤태호 이경천 이금성 이덕한 이방옥 이상규 이선희 이서진 이수진 이수호 이슬이 이용훈 이용훈 이운섭 이원영 이원숙 이은 이의현 이재민 이재운 이재현 이정민 이정화 이주환 이지옥 이지행 이진수 이창학 이현숙 이현호 이형조 이화영 임미정 임소희 임일택 임종록 임종화 임태규 장규선 장기화 장미혜 장서는 장윤희 장혜경 전병국 전종갑 정규장 정규훈 정동혁 정명숙 정명태 정상복 정원정 정유선 정유진 정은호 정재훈 정화조 조무성 조병진 조용환 조정미 조준호 조태래 주민선 주선경 지상선 진미자 천고운 천부현 천선희 최경화 최병성 최상태 최성수 최성숙 최우석 최용 최인선 최정철 최정희 최지혜 최현지 추진연 태원우 하경영 하만중 하용정 한규환 한민근 한상호 한이수 한재량 한지연 한형열 허남 허성연 허순자 허효일 홍인기 홍정진 황병구 황성결 (1만2천) 윤영식 (1만5천) 강병관 권명희 김명찬 김상인 김철성 김태현 박봉순 박택규 배정주 오성만 윤영관 이수정 정화선 (2만) 강은정 강홍구 광상배 권순홍 금은미 김대인 김동주 김명희 김민숙 김상한 김성진 김세진 김승섭 김신근 김양민 김영아 김윤진 김인선 김정백 김정옥 김정원 김중필 김진표 김태식 김태훈 김홍섭 나중주 남재환 남재현 도중수 박경라 박경순 박기출 박대훈 박명배 박복애 박성일 박은미 박관근 박혜리 백경호 서미선 성영은 송성현 신국원 신대희 신영현 양낙홍 오세란 온상원 유영업 유혜영 이만열 이명자 이병환 이석형 이선희 이세령 이수경 이원애 이윤정 이윤현 이은현 이종규 임지용 이정화 장민규 장영삼 정명환 정일용 정중목 정호연 조승희 조현영 조희준 지삼영 차연주 최동우 최삼옥 최영석 최윤선 한병선 한신영 한진영 홍인중 홍종락 (2만5천) 박세진 정세열 (3만) 강석창 강영안 구에리 김선옥 김성봉 김영철 나영진 노치준 박선영 박수창 박재한 박종명 박종원 박철 서한홍 손기식 손승기 손진호 송명숙 송성훈 송택호 엄용환 우미연 유성오 유재근 윤영석 윤혁경 이수지 이장규 이준복 이천화 임성빈 정민정 정철성 정현철 차정아 최혜원 한성준 홍대식 황영실 (4만) 강훈근 김경천 손화철 (5만) 광창대 관광희 김미숙 김용근 김혜경 류은혜 목광수 박종은 박종진 박찬기 배지수 송연자 송인수 신은정 여동명 유혜신 이성근 이원근 이원우 이인택 이철진 이희석 정문희 정병오 조성돈 최광사 최병계 (5만5천) 조홍식 (6만) 고재길 (7만) 유인복 (10만) 김경태 김일수 박원주 박제우 박호용 석중호 손봉호 우창륙 채홍석 현삼원 (12만) 배종석 이상민 (13만) 조원호

2019년 후원 기관 및 교회 (65곳)

(주)마인 (주)소프트이천 (주)카나 100주년기념교회 가음성교회 경주교회 과천교회 관악교회 교회개혁평신도행동연대 공산교회 남군산교회 남대문교회 남서울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다니엘시대교회 대림교회 대주산업 대한기독교간호사회회 동부광성교회 동안교회 마산재건교회 땅미제일교회 목민교회 목산침례교회 별무리교회 보성글로벌(주) 부천평안교회 분당샘물교회 분당소망교회 분당우리교회 빛과소금교회 빛소금교회 새사랑교회 서문장로교회 서울광영교회 서울모자이크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여대대학교교회 서울영동교회 서울영동교회권사회 서울일본인교회 서울중앙교회 서진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시냇가푸른나무교회 안동교회 연약교회 예인법률사무소 오희교회 우리들교회 은혜샘물교회 은혜와영광교회 일원동교회 잠실중앙교회 좋은나무교회 주날개그늘교회 주뜻새들녘교회 주안복지재단 중앙대학교교회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 지비전인타너서널 청량교회 청운교회 침산동부교회 향성교회

신규/재개회원 | 기윤실 운동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27명) 김현정, 강승문, 김대인, 김민아, 김양민, 김태훈, 김현경, 김희완, 노치준, 류은혜, 박종민, 박혜리, 배지수, 백주영, 새사랑교회, 여동명, 우미연, 윤소영, 이선희, 이정화, 이지옥, 이찬석, 정상복, 정원희, 천고운, 최인선, 한민근
6월(9명) 고재길, 김미경, 김성봉, 김승섭, 박성일, 백용진, 왕보현, 자정화, 전병국

후원과 기도로 동역해주시는 회원님,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의 후원자명단을 영수증을 대신하여 신습니다. CMS후원의 경우 전원 미출금 된 금액이 차월에 함께 출금(최대 3개월)되기 때문에 월별 후원금이 회원님께서 약정하신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기윤실 회원님께서 각 지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김현아 팀장 070-7019-3756, khash8501@nate.com

- 05/27(월) 19:00 윤리적투자운동 포럼 2회차(사교육걱정없는세상)
- 05/28(화) 19:30 크리스천 재무상담 스테디 2회차(기윤실 회의실)
- 06/05(수) 19:00 "공정한 선거, 절차를 넘어 결과까지" 포럼
(열매나눔재단 나눔홀)
- 06/10(월) 18:00 청년부채ZERO 더바짝모임 3회차(기윤실 회의실)
- 06/11(화) 19:30 크리스천 재무상담 스테디 3회차(기윤실 회의실)
- 06/14(목) 07:30 제5차 상임집행위원회(기윤실 회의실)
- 06/15(토) 10:00 "한국 개신교의 혐오를 분석하다" 조사 결과 발표세미나
(낙원상가 청어람홀)
- 06/18(화) 19:00 제3차 청년위원회(기윤실 회의실)
- 06/22(토) 14:00 평신도의 상상력 두 번째 이야기 "평신도 점-프"(창비학당)
- 06/27(목) 18:30 제2차 이사회(기윤실 회의실)
- 07/02(화) 19:30 크리스천 재무상담 스테디 4회차(기윤실 회의실)
- 07/05(금) 09:30 하반기 사무처 활동가 워크숍(삼각지 인근)
- 07/09(화) 19:30 명성교회 세습반대 문화제(서울파이낸스센터 앞)
- 07/11(목) 16:00 <좋은나무>발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
(한국기독교회관 2층 에이레네홀)
- 07/11(목) 19:30 <좋은나무>발간 1주년 기념 강연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예홀)
- 07/16(화) 19:00 제4차 청년위원회(삼각지 인근)
- 07/16(화) 19:30 크리스천 재무상담 스테디 5회차(기윤실 회의실)
- 07/29(월) 09:30 하반기 상임집행위원회 워크숍(한국체육대학교)
- 07/31-08/03 성서한국 전국대회(한국성서대학교)
- 08/09-08/10 자체휴강프로젝트 With Camp "화해하고 싶어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종로 5가 여전도회관 블레싱홀)
- 08/14-08/15 전국기윤실수련회(인천대학교)
- 08/26(월) 14:00 교회재정건강성운동 퇴직소득세세미나
(열매나눔재단 나눔홀)
- 08/26(월) 19:00 윤리적투자운동 포럼 3회차(기윤실 회의실)

활동 스케치

기윤실 청년위원회



기윤실의 청년운동본부의 싱크탱크이자 엔진이기도 한 청년위원회는 한 달에 한번 정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자료를 찾아보며 △청년세대의 담론, △교회와 청년, △사회와 청년에 대해 들여다봅니다. 이번 7월 모임에서는 '서울시 청년수당 에세이 - 청년수당이란 응원'을 함께 읽었는데, 청년들의 불안하고 외로운 정서와 현실에 대해 공감하며, 지자체 정책의 의의와 한계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나아가 기윤실에서 청년운동과 사업을 만들어 갈 때 어떠한 태도와 방식으로, 누구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하는 밀그림도 그려보았습니다. 청년위원회는 기윤실에 몇 없는 청년들의 모임입니다. 시대적 흐름, 세대의 감수성, 청춘들의 이야기를 잘 소화하고 또 잘 풀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김현아 간사) **기윤실**

사무처 상반기워크숍

사무처가 상반기를 평가하고, 하반기를 계획하는 워크숍을 7월 5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가졌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도 자발적불편운동, 교회신뢰운동, 좋은사회운동, 바른가치운동, 청년운동 등 각 본부와 팀을 중심으로 운동들을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 운동을 세밀하게 준비하여서 교회와 사회를 향한 의미 있고 풍성한 결과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윤실은 항상 회원분들의 참여와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해주시고, 행사와 모임이 있을 때에 참여와 관심으로 함께해주세요. 또한 지혜롭고 즐겁게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무처 위해 항상 기도해주세요. (최진호 간사) **기윤실**



전국기윤실협의회 소식터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윤실 소식을 나눕니다.
전국기윤실협의회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회원님들께서는
각 지역 활동에 관심가지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9년 전국기윤실협의회 수련회

주최 | 전국기윤실협의회

주관 | 인천기윤실

일시 | 2019년 8월 14일(수)~15일(목)

장소 | 인천대학교 및 인천 일대

대상 | 전국의 기윤실 회원, 활동가, 임원 및 그 가족

회비 | 1박2일 참가자 3만원, 1일 참가자 1만원.

(자녀 무료, 미자립교회 목회자와 가족 무료)

일정

8월 14일(수)	
16:00-16:30	등록, 오리엔테이션, 숙소 배정
16:30-18:00	송도 투어 : G타워, 근대건축박물관
18:00-19:00	저녁식사
19:00-20:00	개회예배: 손봉호 자문위원장
20:00-21:30	전국기윤실 사역 소개 및 대표자회의
21:30-23:00	교제의 시간 : 기윤실 정신을 나누다
23:00-	취침

8월 15일(목)	
08:00-09:00	기상, 아침식사
09:00-10:00	2019 전국기윤실 인천 선언
10:00-12:30	인천 기독교문화유산답사
12:30-13:30	점심식사(차이나타운) 및 해산

문의 | 박제민 팀장 (02-794-6200)

전국기윤실협의회

지역·실무·연락처·이메일·주소

광주 | 고경태 총무 / 010-8525-0288 / ktyhbg@hanmail.net / (61140)
광주광역시 북구 석곡월산길36

대구 | 노동욱 사무국장 / 010-2018-4116 / nohandsong@gmail.com / (42480) 대구 남구 대명로65 세아타워 5층

대전 | 김상호 사무국장 / 010-9970-1291 / blanma@icloud.com / (34927) 대전 중구 대흥로177, 2층

부산 | 가정호 사무처장 / 010-9182-7419 / mento123@hanmail.net / (48730) 부산 동구 중앙대로298, YWCA301호

울산 | 오주철 사무총장 / 010-2565-5208 / ojoocheol@hanmail.net / (44944) 울산 울주군 언양읍 웃방천2길5, 언양영신교회

익산 | 이용호 사무처장 / 010-3996-7023 / iksancemk@naver.com / (54619) 전북 익산시 동서로222 새소망정형외과 2층

인천 | 이진오 실행위원장 / 010-8955-2520 / greatc@hanmail.net / (10073)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11로275 롯데캐슬아파트 303동 704호

전남 | 이광식 사무처장 / 010-3606-6745 / 123kslee@hanmail.net / (59712) 전남 여수시 여서2로51 은현교회

전주 | 김윤배 사무국장 / 010-4245-9222 / kyb0191@hanmail.net / (55900) 전북 임실군 신덕면 조월길10-8 삼덕교회

진주 | 한영수 공동대표 / 010-9979-1010 / comnot@hanmail.net / (52701) 경남 진주시 순환로528, 원정스카이펠리스 6층, 주님의교회

청주 | 홍승표 사무국장 / 010-9452-0214 / hsp0924@hanmail.net / (28521)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81, 2층

(준)정읍 | 정종인 집사 / 010-3999-7802 / cibank64@hanmail.net / (56194) 전북 정읍시 학산로 89-25 엘드수목토아파트 101동 903호

(준)제주 | 김광중 사무국장 / 010-9744-1477 / hymn4747@hanmail.net

화해하고 싶어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교회 혹은 공동체에서 고민되는 관계, 화해하고 싶은 사람, 바꾸고 싶은 불편함이 있나요?

세대 간/또래와의 갈등, 경직된 공동체문화, 가치관의 충돌,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

답답하고 불편한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갈 수 있을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해봐요. 잘 듣고 잘 말하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더 나은 우리 사이, 더 나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해함으로 연결되고, 화해로 물들이는 시간.

WITH CAMP 에 초대합니다.

스며들기

처음 나누는 인사,
한걸음 가까이

연결하기

여는 강의 '쉬운일은 아니지만'
소그룹 대화 '무슨 일이 있었나면'

물들이기

나에게, 그리고 너에게
건네고 싶은 말

이해하기

동그라미 대화 ① : 공감, 경청 실습
감정지도 그리기, 갈등씨앗 질문

화해하기

동그라미 대화 ② :
화해로 나아가는 회복적 대화 워크숍

언제 어디서_ 2019년 8월 9일(금) ~ 10일 (1박 2일) 여전도회관

길잡이 강사_ 평화 활동가 반은기 (비폭력평화물결, 평화교회연구소)

대상_ 교회 / 공동체에 대한 어려움과 갈등관계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최대 20명)

신청_ 기윤실 홈페이지 www.cemk.org